

취약계층 긴급복지 접수 48시간내 긴급 지원

전남도, 수혜자 기준 완화

증빙서류도 대폭 간소화

소득 최저생계비 185% 이하로

전남도가 위기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제도의 수혜자 기준을 완화하고 '선지원 후조사'를 통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로 했다. 또 증빙서류를 간소화해 수혜자의 부담도 줄여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도는 8일 "신속한 긴급지원을 위해 신고 시 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48시간 내 한 달 먼저 지원한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지역 내 긴급지원 대상자는 대상자가 위기상황임을 증명할 서류가 없더라도 담당 공무원, 경찰·소방공무원, 의료기관 등의 현장확인서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긴급지원은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긴급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을 300만원 이하

에서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했다. 지난해 5762가구에 41억 3000만원을 긴급지원한 바 있는 전남도는 이에 따라 지난해(48억3700만원)보다 52% 늘어난 73억7500만원을 올해 사업비로 확보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에서 신청·접수했으나 올해부터는 가까운 시·군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하는 원스톱 지원 행정에 나서 지역민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에 맞춰 조례를 개정할 경우 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 사유를 조례로 정하면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상황

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5일 시장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최씨 부부가 지난해 11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자 아내가 간병으로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해 올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69만6000원을 긴급지원을 받는 등 지난달 말 현재 3290가구에 15억4100만원이 지급됐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복지이통장, 읍면동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읍면동 인적 안전망을 상시 가동해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희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시-광산구 인사 갈등 해소

윤기봉 광산구 부구청장 취임

4급 시절직 자치구 승진 후 교류

부구청장(3급) 전보인사 등을 놓고 마찰을 빚은 광주시와 광산구간 인사교류 갈등이 3개월 만에 해소됐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공적인 광산부구청장 임명을 위해 광산구에 전출임 동의서를 보냈으며, 광산구도 이를 받아 들였다. 이에 따라 10일 윤기봉 혁신도시협력추진단장이 광산 부구청장으로 취임한다.

그동안 광산구가 시에서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대신 구청 내 서기관(4급)의 시 전임을 요청하면서 시-자치구간 갈등을 빚어 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산구를 포함한 5개 자치구와 지난 2011년 제정된 인사교류 협약개정에 나서 상당부분 합의점을 찾아냈으며, 광산구와의 갈등도 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달 내에 시행 예정인 인사교류 개정안은 광주시가 3급 부구청장을 임명하는 대신 4급 시절직을 자치구에서 자체 승진토록 한 뒤 1대1교류하는 안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시절직 5급이 시청에서 4급으로 승진한 뒤 자치구 국장으로 전임되는 게 인사 관례였다.

시는 또 정기인사(6개월) 때마다 자치구별로 돌아가며 5급(사무관) 1명을 받아들이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8급 위주로 이뤄졌던 하위직 시 전임 관례도 7급으로 확대하고, 100% 전임시험 방식에서 구청장 추천을 50%정도 늘리는 방안도 최종 조율 중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호남 KTX 요금 인하·2단계 조기 착공”

조영표·명현관 의장, 박대통령에 건의

조영표 광주시의회의 의장과 명현관 전남도의회의 의장은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남선 KTX 요금인하와 자동차100만대 생산까지 조성 지원을, 호남고속철도 KTX 2단계 착공과 세월호 조기 인양 등을 각각 건의했다.

8일 광주시의회의와 전남도의회의에 따르면 조 의장과 명 의장은 전남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광주·전남지역 최대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조 의장은 “자동차 100만대 생산까지 조성사업이 대통령의 임기 내에 추진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2015년 상반기에 조기완료하고 2016년 사업비를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호남고속철도 용산~광주승정역의 요금이 4만 6800원(154원/km)으로 서울~대구역의 4만2500원(145원/km)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됐다”면서 적정 요금으로 재산정에 주기를 건의했다.

명 의장은 지역의 최대 현안인 호남선 KTX 2단계 공사와 세월호 인양 문제를 요청했다.

전국 시도의회의 의장협의회는 또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광역의회의원보좌관제 도입,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이재의 비서실장 사표 수리

이재의 광주시 비서실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지난달 23일 사의를 표명한 지 2주일만이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윤장현 광주시장은 지난 7일 이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시는 그동안 인사 절차에 따라 검찰과 경찰,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이 실장의 사정 근무 2개월동안 비위행위 등에 대한 조회 절차를 밟아왔다. 이 기간 비위 등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표 처리가 되지 않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중산층 편에 서겠다… 재벌도 개혁 동참해야”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8일 “134조 5000억원의 공공가계부를 더 이상 지킬 수 없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 3년간 예산 대비 세수부족은 22조2000억원이다”며 “중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중세 없는 복지론’을 고수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겨냥, “이제 우리 정치권은 국민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한다”며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미래의 선택지를 찾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조세 형평성 확립 ▲소득·자산 비율에 따른 담세 가중 ▲법

인세 성역화 경계 등을 고려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이를 위해 세금과 복지 문제를 논의할 여야 합의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또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한다”며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균형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과 중산층의 편에 서겠다”며 10년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 ‘양극화 해소’를 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통찰을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유 원내대표는 “성장의 해법은 전 분야에 걸친 개혁으로 일방의 희생만 강요해선 안 된다”면서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재벌에 대해 “재벌대기업은 지

난달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뤘다”며 “천민자본주의 단계를 벗어나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의 아픔을 알고 2차, 3차 하도급업체의 아픔을 알고 이런 문제의 해결에 자발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재벌대기업에 임금인상을 호소할 게 아니라 하청단가를 올려 중소기업의 임금인상과 고용유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재벌그룹 총수일가를 보통 사람과 똑같이 처벌하고 사면, 복권, 가석방 등도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놀랍다’, ‘명연설’, ‘박수’ 등 표현을 동원해 극찬했다. 유은혜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이가 아 할 방향을 보여준 명연설이었다”며 “새누리당의 이러한 새로운 변화가 실천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5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Gunsan Saemangeum International Marathon



일시 : 2015. 4.12 (일) 08:00

장소 : 군산월명종합경기장

참가신청기간 : 2015. 1. 21 ~ 3. 20(59일간) | 마라톤사무국 : 063)465-7731 02)418-7881

국제공인대회 : Full, 10Km, 5km www.smgmara.com

■주 최 : 군산시육상경기연맹 * 군산시 ■주 관 : 전라북도육상경기연맹 * 군산시민체육회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 새만금개발청 · 전라북도 · 군산시의회 · 군산경찰서 · 군산소방서 · 군산시육상경기연맹

